

사찰마당서 춤추고 노래해요

광주 파라미타, 무각사에서 음악놀이 경연 1000여 청소년 열광... 연합팀 '리미트리스' 대상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찰 경내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했다. 파라미타 광주 청소년협회(지부장 광민, 이하 광주 파라미타)가 무각사에서 펼쳐진 음악놀이 경연대회가 화제의 현장. 올해에도 광주 파라미타는 9월 23일 무각사 경내에 무대를 마련하고 '제4회 광주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광민 스님은 대회사에서 "열린공간에서 마음껏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꿈과 끼를 발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광주지역 30여개 중·고교에서 댄스, 밴드 등 15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팀들은 지난 16일 실시한 예선에서 36

개팀, 102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합을 펼쳐 당당하게 본선에 올랐다. 공연 중간에는 지난해 댄스 수상팀 '소울라스틱'과 지희스님 등이 초청되어 찬조공연을 펼쳤다. 광주 파라미타 이종배 사무국장은 "광주 지역에서 예선에 30여개에 이르는 팀과 10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하는 청소년 놀이마당은 광주 파라미타 음악놀이가 유일하다"며 "급년에는 최고상이 국가청소년위원장으로 승격되어 전국대회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 음악놀이를 주관한 지희스님(동원사 주지)도 "천여 학생들이 사찰에서 놀이마당을 펼치는 것만 보아도 신심이 난다"며 "청소년 포교는 그들이 원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광주지부 주최로 1천여 청소년들이 무각사 경내에 마련된 무대에서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펼쳤다.

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임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에서 광주공교, 세종고, 동일전자정보고 학생들의 연합팀인 '리미트리스'가 가요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 익산 백운사

천호산에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익산 미륵사지 북동편에 천호산이 자리해 있다. 예로부터 보현(백운암), 문수(문수암), 관음보살(백련암)이 상주하는 부처님 땅이다. 각각 500m 거리를 두고 자리한 이들 암자에는 천년 전부터 보살을 친견코자 찾아오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교성지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난, 사리를 존자가 함께 상주하게 됐다. 보현도량 백운사주지 우성 스님이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조성하

다. 현재 세속인이 73세인 스님은 20여년간 발심했다. 뒤늦은 출가이기에 한치도 게으름 피울 수가 없었다. 만행하다 1991년 우연히 발길이 멈춘 백운암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쓰러지기 직전의 인법당은 언제 쓰러질지 몰랐다. 신도도 없었다. 곧바로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3년 후 다시 천일기도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법당과 요사채가 건립되었다. 또다시 세 번째 천일기도에 들어갔다.



익산 백운사 주지 우성 스님이 진신사리탑이 세워질 곳을 안내하고 있다.

기 때문이다. 도량 원편에 마련된 70여 평의

20년 공들여 폐허에 대가람 중창 사리탑 조성 앞두고 29일 친견법회

그런데 공부에는 마장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사리단에는 중앙에 13m 높이의 8각9층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건립된다. 좌우에도 각각 9.5m 높이의 4각5층탑에 아난과 사리불의 사리가 봉안된다. "이곳에 봉안하는 부처님 사리는 본래 미국에 모셔졌던 사리입니다. 이 땅에 불탑이 다시 성행하게 될 인연이 있는지 희유하게도 부처님이 천호산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화재로 그동안의 불사가 더미가 됐다. 백일가람 했던 기도를 멈추고 다시 천일기도를 입재했다. 대웅전, 약사전, 관음전, 삼성각, 미륵전, 종각, 요사채 등 10여동의 건물이 들어서고 도량이 일신됐다. 암자였던 가람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백운(寺)로 거듭났다. 이렇게 1만일간의 기도가 끝나고 미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오게 된 것이다.

4년 전, 미국에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온 우성 스님은 "지금도 부처님이 이곳에 오게 된 인연을 생각하면 희유하다"고 회고한다.

미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오게 된 인연을 생각하면 희유하다"고 회고한다.

우성 스님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는 본래 미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의 사산야(San aye) 씨가 모셔왔다. 불자인 산야 씨는 미국에 탑을 세워 봉안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 미국에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기에는 인연이 성숙되지 않았다. 결국 한국 교포불자와 인연이 맺어졌고 우성 스님에게 연락이 닿게 된 것이다.

백운사 주지 우성 스님은 늦깎이

특별자치 계기로 제주문화 발전 기원

제주 관음사, 한라산 영산대재 봉행

제주발전은 기원하고 제주특별자치 시작을 알리는 '제7회 한라산 영산대재'가 열렸다.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와 제주도(도지사 김태환)는 9월 28일 관음사에서 천도제와 기원제, 경신공양제를 올렸다(사진). 이날 영산대재에는 지역 사삼 스님과 관내 기관장, 도내 마을 대표, 제주도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영산대재에는 고려 태조 왕건으로부터 성주 작위를 하사 받은 탐라 국왕의 '조복'과 관직자들의 '공복'이 복원되어 의식을 더욱 장엄하게 했다. 한편 한라산 영산대재는 일제 강점기에 중단된 제주도 각 마을의 민중제례를 되살린 제주 토속신앙이자 전통문화로 제주의 군관민이 관음사에 모여도 민화합과 제주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9월 27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제10회 광

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예술제에는 광주불교사암, 증심사, 금광사, 백양사, 향림사, 원각사, 원효사, 보리사당, 전남전태재불교합창단 등 9개팀이 참가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혜향 스님은 인사말에서 "찬불가를 부르면 번뇌가 끊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며 "부처님 향이 가득한 불교음악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사 : (010)3069-3170

아이와 단풍 즐기고 은행 줍고 천진암, 29일 '온가족...' 법회

아이들과 함께 얘기담을 감상하며 마음껏 은행을 주워가는 특별한 법회가 열린다. 장성 백양사 산내 암자인 천진암주지 해만은 백양사의 자랑인 얘기담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29일 '온가족이 함께하는 은행줍기 법회'를 봉행한다.

광주 북구청 불자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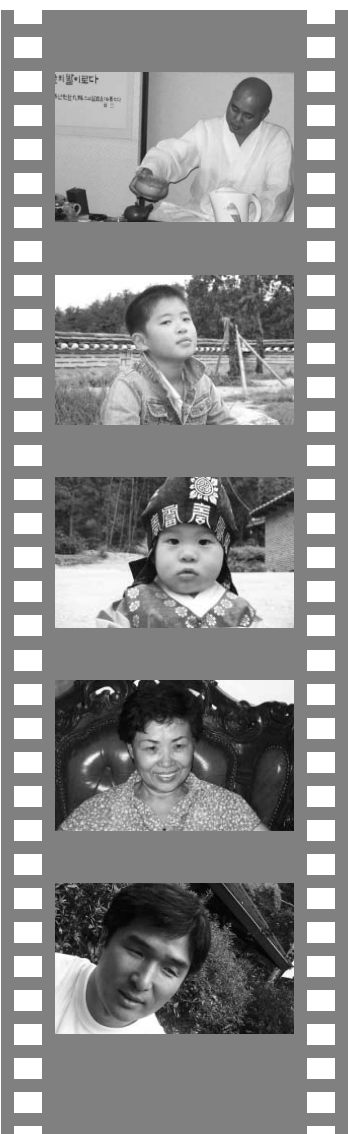


광주 북구청 불자회(회장 김희진)가 9월 27일 창립했다. 이날 북구청 관내에서 근무하는 불자 70여명은 광주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과 송광운 북구청장, 김상용 북구의회의장 등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청 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북구청 불자회는 매일 정기법회와 사찰 순례를 갖고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재소자들의 사은 예술제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진공)는 9월 27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제2회 갇힌 자의 사은 예술제'를 개최했다. 예술제에서 재소자들은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과 천안소년교도소 중의소년단 타악 퍼포먼스, 대전교도소 악대 등 교도소 특별반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 종교위원과 교정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s.co.kr



그가 주먹으로 눈물을 흘리며 산을 벗어날 때 공기를 타고 날아온 부처님의 목소리가 꽃향기처럼 그의 귓가를 스쳤다. '너는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먼 훗날 나의 일을 도울 날을 위해 너는 지금 고통의 길을 떠나는 것이니라. 그날이 오면 아니나다워, 너는 나의 가슴 돌 위에서 천만의 사람들에게 거대한 줄을 울리리라.'

전생의 막연한 도반으로써...이 생의 임무를 서약한 친구로서...원효는 그에게 어느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성총 역시 자신의 사명을 무의식 속에서는 잊지 않고 있었다. 원효는 어찌 보면 성총을 자식 이라기 보다는 친구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와의 인과를 알고 있었기에...

권 오임은 처음으로 구선을 보는 순간-깜짝 놀라고 말했다. '언젠가 되었던 분야야! 인...옛날부터...난 이 분을 알았어...!' 그녀는 성법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분이대! 이 분이아말로...내 긴 수행여정의 종착역이다!' 그것은 수십 년을 수행해오면서 얻어진, 거의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스승이 다녀간 후에 지선은 서예의 목적이 생겼다. 아니, 인생의 존재목적이 생긴 것이다. 붓글씨로써-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

중관(中觀) 가관(假觀) 공관(空觀) 3관(三觀)의 법- 2000년 대승불교, 최상의 법(法)을 공개한다.

한치선 지음
각 권 11,000원

가-불교의 원리
인드라의 그물

나-공공을 보자는
기둥이 어디다

"대 보현이라고? 지운스님의 후생이라는 보현이가 너였어?" 경오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보현의 가려진 어깨를 부둥켜안고 토닥이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스님...이렇게 또 뵈게 되는군요...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내가 지운스님이었던 보현이라고..."

그의 가슴 중심에는 그러한 비전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무색계의 신명들이 이미 광대한 호수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려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들이 깊은 잠의 행성인 지구를 깨우려 올 것이다.

그것은 구선에 주어질 엄청난 선물인 동시에 엄청난 숙제이기도 하였다. '아!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수련법이구나! 어찌해서 이런 법이 여태껏 인간세계에 봉인 된 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죽음의 시간 언저리에서-아들인 시우의 전신은...지금의 아버지의 전신에게 갖기 어려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시의 판단은 옳지 않았어요! 우린...당신 때문에 죽게 되거야...! 라고.

